



뉴스 형식 다큐 '미래엔딩' 30일 공개
 드라마 서사 입힌 다큐 '인간'
 다큐에 음악예능 더한 '지구 위 블랙박스'
 정형화된 틀 깨고 시청자 쉽게 접근 '호평'

드라마인가 다큐인가 뉴스인가

뉴스 형식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미래엔딩', 드라마의 서사를 입힌 다큐 '인간: 신세계로부터', 다큐에 음악 예능과 드라마의 요소를 더한 '지구 위 블랙박스'...

최근 방송가에서 뉴스나 드라마, 음악 예능의 형식을 더해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깨는 다큐 프로그램이 잇달아 제작되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시청자에게 새롭고 신선한 재미를 줄 가능성이 있고 기존 표현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만큼 창작자가 더 많은 재량을 펼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지난 10일 방송가에 따르면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은 기후 변화가 지속될 경우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재난 상황을 짚어보는 5부작 다큐 '미래엔딩'을 이달 30일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기후 위기를 다룬 다큐는 무수히 많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형식을 입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JTBC 백다혜 앵커가 출연하고, 배우 박해수가 현재와 과거, 미래 상황을 해설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뉴스를 전하듯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을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KBS 1TV가 지난 9일 처음 방송한 '인간: 신세계로부터'는 인류사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 미술 작품들을 소개하는 인문학 다큐에 드라마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기후 변화로 종말을 맞이한 미래를 배경으로 과거에 화가였던 노인 서준(안석환 분)이 사라져버린 인간다움을 담은 예술작품을 찾아 헤메는 과정을 드라마로 담고, 이에 맞물려 다큐가 펼쳐진다. 이 프로그램은 서준이 AI 소녀와 함께 폐허가

된 건물에 들어가 과거의 명화들을 담은 작은 수첩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

서준은 수첩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발견하고, 이어 서준의 내레이션과 함께 자료화면으로 넘어간다. 서준은 인간의 미소가 그림의 소재로 등장한 것이 '신세계의 시작'이었다며 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방송된 KBS 2TV '지구 위 블랙박스'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쉽게 전하고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다큐, 예능, 드라마의 성격을 모두 갖췄다.

'지구 위 블랙박스'는 기후 변화로 황폐해진 오늘날 지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아티스트들이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이렇게 기록된 모습을 지구가 더는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린 미래에 사람들이 꺼내본다는 것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다.

지구의 모습을 관찰하는 임무를 띤 '기록자'들은 과거인 2023년 지구의 기록을 보면서 '저 때는 아직 희망이 있었다'고 한탄한다.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기후 변화를 지켜본 2023년의 아티스트들이 느낀 감정도 인터뷰를 통해 전달한다.

달라진 기후 위기 실태를 보여주는 환경 다큐, 아티스트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음악 예능, 이 두 요소를 연결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파멸을 경고하는 드라마가 조화를 이뤘다.

이미 공개된 '지구 위 블랙박스'와 '인간: 신세계로부터'는 자칫 무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환경과 인문학이란 주제에 시청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지구 위 블랙박스' 클립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유독한 참신한 프로"라는 댓글이 달렸다. '인간' 1회 전편을 공개한 유튜브 페이지 댓글 창에도 "안석환 배우의 연기와 내레이션이 다큐의 깊이를 더한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개를 앞둔 티빙의 '미래엔딩' 역시 뉴스의 형식을 접목한 만큼 기존 다큐보다 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형식을 접목한 프로그램은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청자의 감응을 해소하고 기존 형식이 가진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구 위 블랙박스'를 연출한 구민정 PD는 이처럼 여러 형식을 접목해 콘텐츠를 제작한 이유에 대해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감정을 울리는 데 초점을 두자고 생각했는데, 결국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음악과 드라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 겨울 극장가는 '눈물버튼' 모녀 이야기

'3일의 휴가'·'교토에서 온 편지'·'물비늘' 등 개봉 예정

딸들에게 엄마 이야기는 참기 힘든 '눈물 버튼'이다. 올겨울 극장가에도 딸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한국 영화가 잇따라 찾아온다.

12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해숙과 신민아가 모녀로 나오는 영화 '3일의 휴가'는 다음 달 6일 극장에 걸린다.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휴가를 받은 복자(김해숙 분)가 지상으로 내려와 딸인 진주(신민아)를 보게 되는 이야기다.

엄마가 남긴 요리법으로 고향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진주는 사흘간 엄마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를 보거나 만질 수는 없다. 엄마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딸과 그런 딸을 지켜만 봐야 하는 엄마라는 설정이 독특하다.

'3일의 휴가'는 옥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7번방의 선물'(2013)과 '82년생 김지영'(2019)의 유영아 작가가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김민주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담아 각본을 쓰고 연출한 '교토에서 온 편지'도 같은 날 관객을 찾는다. 오래된 일본어 편지를 발견하고서 엄마가 50년간 숨겨온 소중한 비밀을 알게 된 세 자매의 이야기가 담겼다.

부산 영도에서 홀로 세 딸을 키워 온 엄마 화자(차미경)와 서로 다른 꿈을 가진 자매 혜진(한채아), 혜영(한선화), 혜주(송지현)가 주인공이다.

이 영화는 제29회 프랑수아즈 브졸 국제아시아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등 2개 상을 받았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 영화제에도 초청받았다.

다음 달 중 개봉하는 '물비늘'은 장르나 분위기는 앞선 작품들과는 다소 다르지만, 가족이라는



'3일의 휴가'



'교토에서 온 편지'

큰 주제는 같다.

갑작스레 실종된 손녀의 유해를 찾으려는 할머니 예분(김자영)의 이야기다. 1년이 넘도록 매일 강물에 들어가 시신을 수색하던 그는 손녀의 절친한 친구 지윤(홍에서)과 조우하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간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최초 공개된 이후 "신중하게 모색되는 보호와 양육의 드라마"라는 호평을 들었다. /연합뉴스

비틀스, 마지막 신곡 '나우 앤드 덴' 英싱글차트 54년 만에 1위

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사진)가 마지막 신곡 '나우 앤드 덴'(Now And Then)으로 무려 54년 만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정상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나우 앤드 덴'은 전주보다 무려 41계단 훌쩍 뛰어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비틀스의 통산 18번째 1위 싱글이다.

'나우 앤드 덴'은 아련한 감성과 풍성한 사운드가 특징인 노래다. 특히 30대에 멈춘 존 레논의 목소리와 80대가 된 폴 매카트니의 하모니가 노래 제목과 어우러지면서 몽글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 곡은 비틀스의 모든 멤버가 참여한 마지막 노래로 화제를 모았다. 1996년 발매된 '리얼 러브'(Real Love) 이후 27년 만이다.

'나우 앤드 덴'은 당초 레논이 1977년 피아노 반주에 자신의 목소리를 얹은 미완성 데모곡이었다. 비틀스 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레논의 목소리를 깔끔하게 분리해낸 뒤 멤버들의 연주와 코러스를 더해 신곡을 완성했다.



비틀스는 1970년 해체됐고 이후 레논은 1980년 뉴욕 집 앞에서 열성 팬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기타리스트 조지 해리슨은 2001년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비틀스가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1969년 '더 발라드 오브 존 앤드 요코'(The Ballad of John and Yoko) 이후 54년 만이다. 이로써 이들은 또다시 1위를 기록하기까지 가장 긴 기간을 거친 팀으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대규모 전투로 막 올린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시청률 5.5%

여요전쟁을 배경으로 한 김동준, 최수종 주연의 대하사극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이 5%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5분 KBS 2TV에서 방송한 '고려거란전쟁'의 시청률은 5.5%로 조사됐다.

첫 방송은 거란(요나라)과 고려의 전투 장면으

로 시작했다. 고려군이 바위가 달린 거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검자'를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거란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고려거란전쟁'은 첫 전투 장면에서 웅장한 규모와 세련된 카메라 움직임이 돋보였다. 검자 아래로 침투해 공격하는 거란군 병사의 시선을 1인칭으로 카메라에 담는 등 생생한 연출도 선보였

다. 역사적으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목종의 동성애를 과감하게 표현하고 기존의 대하사극보다 한결 가벼워진 대사도 신선한 느낌을 줬다.

다만 일부 시청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게시판 등에서 '고려 병사들의 발음이 불분명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배우의 연기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50분 방송한 남궁민 주연의 MBC 퓨전사극 '연인'은 11.6%의 시청률을 기록해 동시간대 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